

고려대·연세대 입시 수시전형 최초합격자 46.1% 등록 포기

합격자 4854명 중 2236명 등록포기
지난해 보다 5.5%p 늘어난 수시
의대정원 확대에 자연계열서 늘어
인문계열서도 48.7% 등록 안 해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전형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최초 합격자 46.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영향으로 자연계 복수합격자 학생들의 이탈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입시에서는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합격이 과거보다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8일 마감된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수시전형 최초 합격자 등록 결과 고려대와 연세대 최초 합격자 4854명 중 223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이는 지난해(1927명, 40.6%)보다 5.5%p 늘어난 수치다.

최초 합격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에 등록을 포기한 것은 다른 대학에 중복으로 합격 후 등록을 했다는 의미다. 수시모집은 총 6곳 대학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한 군데라도 합격하면 무조건 등록해야 한다.

연세대는 최초 합격자 47.5%에 해당하는 1033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해 최초 등록자 중 포기자는 784명을 36.4% 비중을 차지했지만, 올해 31.8% 늘었다.

고려대는 최초 합격자 44.9%인 1203명이 등록하지 않았다. 지난해 44.1%(1143명)보다 60명 증가해 5.2% 늘었다.

두 대학의 계열별로 보면, 자연계열에서는 연세대와 고려대가 각각 48.6% (지난해 43.2%), 43.6% (지난해 46%)의 최초 등록자가 등록하지 않았다.

자연계 학과별로 살펴보면, 고려대는 ▲전기전자공학부 65.2% ▲물리학과 64.5% ▲반도체공학과 60.0% ▲차세대통신학과 60.0%가 등록을 포기했고, 연세대에서는 ▲수학과 72.7% ▲첨단컴퓨팅학부 71.6% ▲화공생명공학부 69.8%가 등록을 안 했다.

자연계열에서 등록포기자가 늘어난 것은 의대 모집정원 확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문계열에서도 수시 최초합격자 등록포기가 늘어났다. 인문계열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모두 47.7%가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37.8%)보다 증가했다. 인문계열 학과를 보면, 고려대 ▲철학과 68.0% ▲정치외교학과 67.4% ▲경제학과 63.8%에 해당하는 최초 합격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고, 연세대는 ▲융합인문사회과학부(HASS) 65.4% ▲교육학부 62.1% ▲경영학과 60.0%가 등록을 안 했다.

의대에 불고도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도 작년보다 늘었다. 2025학년도 연

세대 의예과 수시 최초 합격자 중 41.3%인 26명이 등록을 포기해, 지난해 30.2%(19명)보다 증가했다.

이는 자연계열 최상위권 학생이 인문계열로 교차지원한 뒤 중복합격하면서 포기한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연세대 치대의 경우 수시 최초 합격자 47.1%에 해당하는 16명이 등록을 포기하면서, 지난해 포기율 14.7% (5명)보다 3배 증가했다.

고려대 의예과도 수시 최초 합격자 55.2%(37명)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해 50.7%(34명)보다 높은 수치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의학계열에서도 치대에서 의대로, 약대에서 의대로, 한의대에서 의대로 상당수 중복합격자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연세대, 고려대 수시 최초합격자 미등록 상황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중상위권, 중위권, 중하위권 전반에 걸쳐 추가합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각 대학들은 추가 합격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수시 추가합격 발표횟수, 합격자 전화 통보 등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수험생들은 추가합격자 전화를 못 받을 시 불합격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서울시

코레일·SH공사,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담당

사업비 약 14.3조... 7대 3 비율 시행
서울시는 2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SH공사는 실제 계획 인가 신청 등 각종 인허가의 실질적인 행위 주체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총사업비는 약 14조3000억원이며, 코레일과 SH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공동 시행한다. 사업은 공공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한 뒤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레일은 기본계획 수립과 인허가

추진, 토양 오염 정화, 문화재 조사, 사업 구역 토지 공급 등을 맡는다. SH공사는 기본 및 실시 설계, 토지 보상(국공유지·사유지), 지구 내·외 공사를 담당한다.

시는 내년 하반기 실시 계획을 인가·고시하고, 기반 시설 공사를 시작해 2030년대 초반 1호 기업 입주주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금번 사업 시행자 지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세계적인 입체 융복합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교육청, 영유학교 시범사업 성과 공유

운영 사례 공유, 발전 방향 모색
2부 행사, 유튜브 통해 참여 가능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2024 영유학교 시범사업(가칭)' 시범운영기관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2부로 이뤄진다. 1부는 유보통합 업무관계자, 2부 행사는 유치원·어린이집 교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2부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서울시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2024(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경과 발표 ▲시범사업 실천 사례 공유 ▲육아정책연구소 기초강연 ▲시범운영기관 교원·학

부모·시범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도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교육·보육 공공성 강화 및 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9월부터 유보통합 이상적 모델 현장 구현을 위해 유치원 3곳, 어린이집 4곳 등 총 7곳의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은 ▲충분한 운영시간 및 일수 보장 ▲교사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 ▲수요 맞춤형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또한 서울시 관내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보편적인 질적 개선을 위한 특색사업으로 ▲지역사회 협력 구축 ▲영·유아 교사 역량 강화 ▲교육·돌봄 환경 개선 ▲영유아 정서·사회·심리 발달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 인프라 확대 등을 추진했다. /이현진 기자

(2025학년도 연세대 고려대 수시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 상황)

대학	2024			2025		
	모집인원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 인원	비율	모집인원	최초 합격자 등록 포기 인원	비율
연세대	2,153	784	36.4%	2,174	1,033	47.5%
고려대	2,593	1,143	44.1%	2,680	1,203	44.9%
계	4,746	1,927	40.6%	4,854	2,236	46.1%

/종로학원

내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해제

서울시 "보행환경 개선 성과 있었지만
경기침체 요인 등 상권 활력 저하
교통량 변화도 미미... 목적 상실"
해제 후 안전시설 보완 등 예정

서울시는 내년 1월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19일 밝혔다.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의 보행자·대중교통 전용공간으로, 2014년 1월 신촌로터리에서 연세대 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 만들어졌다.

시는 "보도폭 확대, 차로 축소, 광장 조성으로 보행 환경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후 약 10년이 경과하면서 경기 침체 등의 요인으로 상권 활력이 저하돼 상인들이 해제를 요청했다"고 지정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약 2년간의 현장 조사, 상권·교

통 상황 모니터링, 시민·전문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를 결정했다. 종합적인 분석 결과 부족한 교통 수요 분산 효과, 상권 매출 하락 연관성 등이 확인됐다고 시는 부연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전용지구 지정으로 인한 교통량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전용지구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운영 전후의 차량 통행 속도를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며 "대중교통 전용지구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는 목표로 하나, 연세로에서는 큰 효과가 없어 지정 목적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전용지구 운영으로 상권 매출도 하락했다. 시가 연세로 내 65개 업종, 700여개 가맹점의 2023년~2024년 동월 매출액을 비교한 결과 시범 해제 기간 중 전체 매출액은 6.3%, 점포당 매출액은

6.2%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해제 이후에도 지속적인 보행 친화 정책이 유지될 수 있게 ▲안전 강화 ▲교통소통 관리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는 신촌역 2·3번 출구 앞과 연세로 교차로 양방향 진입부 보·차도를 포장해 시인성을 높이고, 교차로 신호·횡단보도·앞음식·블라드·석재 화분을 추가로 설치해 안전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서대문구는 해제 후 약 6개월간 모니터링을 시행해 교통량과 차량 통행 속도를 분석, 연세로 교차로의 신호를 조정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연세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도로 전체를 보행자를 위해 개방하고 각종 문화 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0@

청송군,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선정

환경부 공모사업... 국비 4억 확보

청송군은 2025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생물 다양성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자가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활용해 훼손된 지역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청송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성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 일대의 지방도 선형 개량 과정에서 폐도부지로 방치

된 공간을 복원하여 ▲생태모텔숲, ▲밀원초화원, ▲조류유인숲, ▲생태학습장 등을 조성하고, 생태습지를 만들어 생태교육 학습의 장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생물서식처 복원과 습지 조성을 통해 단절된 연접산 산림생태계를 연결하고, 신성리 공룡발자국 지질명소를 방문하는 유·동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송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